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0 No.2 (2016 Summer) http://dx.doi.org/10.20484/klog.20.2.11

CVM을 활용한 역사관광자원의 입장료 지불가치 추정: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박 찬 열** 송 화 성***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조건부 가치추정법(CVM)을 이용하여 수원화성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다. 일반 문화유산 가치에 대한 CVM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전체 국민이 아닌 수원 방문객을 대 상으로 보다 정확한 입장료 지불의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수원 방문객들의 수원화성 입장료 지불의사금액은 5,267.5원으로 현행 입장료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WTP에 기초하여 수원화성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 수원화성은 연간 약 19억 원의 가치를 가치며, 수원방문객 수에 근거한 잠재적 관광가치는 연간 150억 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조건부가치추정법, 입장료, 지불의사, 역사관광자원, 수원화성

T. 서론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며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현대인은 여가문화를 삶의 필수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지적욕구를 충족시키며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고자 하는 현대인에게 있어 문화유산은 보존과 전승의 대상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활용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그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이 가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문화유산 활용의 다양성을 확장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그러나현실적으로 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관람료가 징수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주요 문화유산의 관람료 수준은 해외와 비교하여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가치에 합당한 관람료 징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수원시정연구원, 2015a)¹⁾, 한편, 문화유산

^{*} 본 논문은 2015년 수원시정연구원 정책과제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저자들은 본 연구의 수준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 논문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오류는 전적으로 저자들의 책임임을 밝힌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의 관람료가 높아지면 문화재보호기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나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이 저해되는 상충관계(trade off)도 있다(문화재청, 2012). 이로 인해 문화유산 관람료를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인식으로 해석하여 현재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개방하기 위해 관람료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문화유산의 특성과 가치에 맞는 적절한 관람료 수준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천편 일률적인 문화유산의 관람료를 각 문화유산의 특성에 맞춰 차별화하고, 이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원화성은 그 완전성(integrity)과 진정성(authenticity)의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됨으로서 건축사적·역사적·예술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수원화성은 각종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관광자원적 가치도 매우 높다. 실제로수원화성은 매년 30-5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지역 대표 관광지이다²). 하지만 수원화성 입장료는 성인 1명에 천원 수준으로 관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뿐 아니라 수원화성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기에도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수원시정연구원, 2015a).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 관람료와 결부된 논의들을 토대로 수원화성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 즉 화폐적 수준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여 수원화성에 대한 가상의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WTP)를 추정하고 수원화성 입장료의 적정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수원화성의 가치에 대한 기존 CVM 연구들과는 달리 구체적인 수원화성 가치의 세분화, 조사대상 및 지불방식 설정 등 적정 입장료 수준 추정에 보다 적합한 조사설계를 통해 연구결과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연구를 통해 수원화성 입장료를 현실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문화유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

문화유산은 쓰임새의 폭이 점차 넓어지며 사회적 효용성과 활용가치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과거에는 문화유산의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보존가치를 중시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문화유산은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으로서의 교육적 활용, 자원화 및 상품 개발의 경제적 활용, 전통역사와 문화의 고유성 확립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활용 등 그 활용가치가 다양해졌

¹⁾ 각국 빅맥 지수를 통해 문화유산 관람료를 비교해보면, 영국의 경우 평균 문화유적 관람료가 빅맥 가격의 6.31배, 인도 4.76배, 프랑스 3.92배, 중국 2.51배, 일본 1.65배로 나타났으나 한국의 경우, 0.64배로 유일하게 빅맥 가격이 문화유산 관람료보다 높았다.

²⁾ 수원화성 방문객 2010년 55.9만명, 2014년 36.5만명(수원시정연구원, 2015b)

다(장호수, 2006). 이처럼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논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수행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최 소화하고 명확한 보존과 개발의 방향성을 설정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한상현, 2007b).

문화유산은 경제적 가치로서 시장가치와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거래되지는 않지만 해당 재화의 실존 가치를 의미하는 비시장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일반재화와 달리 문화유산은 시장기구 에 의해 그 가치를 제대로 추정할 수 없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경제적 가치 추정이 어렵다(경기개발연구원, 2014). 따라서 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해당 자원의 비시장가치를 추정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의 자원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상 적 상황을 통해 지불의사금액을 파악하고 이를 자원가치로 평가하는 CVM이 문화유산에 대한 경 제적 가치 평가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김사헌·김규호, 2012).

CVM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재(non-market goods)에 대해 특수한 가상적 상황 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설문을 통해 파악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응답자들은 비 시장재의 가상적인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불의사가 있는지 대답하게 된다(김해창 외, 2014; 한국개발연구원, 2004). 특히 CVM은 가상적 상황을 응답자에게 묻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조사방법에 따라 평가액의 편의(bias)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설계를 포함한 자료수집방법 론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한상현, 2007a).

2. CVM을 통한 문화유산 가치평가 연구동향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국내 CVM 연구를 대상으로 조사대상, 질문방법, 지불도구, 지불의사금 액을 중심으로 분류해보면 〈표 1〉과 같다³). 문화유산에 대한 CVM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김학용· 김성섭(2003)의 연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대상은 주로 고 궁, 성곽, 사찰, 고부, 마을, 고인돌유적, 박물관을 비롯한 부동산문화재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팔만대장경판과 같은 기록유산. 강릉단오제 같은 무형문화유산까지 연구대상의 범위가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CVM은 문화유산의 가치추정에 있어 효과적이나 이를 이용하여 지불의 사를 추정할 경우, 추정방법, 지불도구 등의 선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송용·김재 석, 2012). 특히 조사대상이 동일하더라도 추정방법, 지불도구 등이 연구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경우 지불의사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설문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을 중심으로 비교해보면, 주로 방문객을 대상으로 현장면접조 사 방법을 진행한 연구가 대다수이고, 일부 연구에서는 지역주민 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는 대다수 지역 문화유산이 인지도, 사용가치 등의 측면에서 전국단위로 확대 적용 하는데 한계가 있고 방문객이 가장 구체적인 효용 수준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³⁾ 선행연구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한국학술정보(주), 누리미디어(주)를 이용하여 검색하였으며, 학위논문 을 제외하고 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선행연구들에서 지불의사 설문문항의 구성은 대부분 양분선택형을 사용하였고 개방형 질문을 사용한 연구(허중욱, 2007)는 1건에 불과하였다. 특히 출발점 편의, 설문조사원의 편의에 대한 영향이 적으며 응답자의 전략적 행위를 줄일 수 있는 이중양분선택형 추정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희승 외, 2006; 한상현, 2007a; 변일용·김선범, 2007; 이영경, 2008; 정민섭 외, 2008; 옥성수, 2009; 허민희 외, 2009; 송용·김재석, 2012; 이은지 외, 2013).

지불도구로는 사용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관람료와 비사용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보존기금(혹은 공공기금)이 각각 9건과 8건으로 비슷하였다. 이들 연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람료를 징수하는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지불수단으로 관람료를 사용한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로 보존기금이 사용되었다. 또한 지불수단 중 가장 거부감이 큰 것으로 알려진 세금을 지불도구로 이용한 연구도 2건이 있었는데, 이는 팔만대장경판이라는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기록유산이거나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성격으로 타연구들에 비해 대상의 공공성이 뚜렷한 경우로 구분할 수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추정한 지불의사는 대체로 사용가치보다는 비사용가치에 치중한 경우 분포 범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가치라 할 수 있는 관람료 지불의사는 최소 2,198원부터 최대 8,668원까지 나타났으며, 비사용가치로 볼 수 있는 보존기금은 최소 4,298원부터 최대 14,837원까지 더 넓게 분포되었다.

본 연구와 동일하게 수원화성을 연구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김학용·김성섭(2003), 허민희 (2009)의 연구가 있으나, 이들 연구를 통해 수원화성의 적정 입장료 수준을 파악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김학용·김성섭(2003)은 CVM을 이용한 수원화성의 가치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선형로짓(linear logit) 모형과 로그로짓(log logit) 모형을 각각 추정한 후 통계적 적합도가 보다 높은 로그로짓 모형에 의해 1인당 4,260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김학용·김성섭(2003)에서는 수원화성의 '관광자원 가치'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방문객 및 수도권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하지만 수원화성의 적정 관람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원화성의 가치를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방문객에 국한하여 보다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수원화성의 가치를 세분화하고(〈표2〉를 참조) 수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최근 CVM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이중양분선택형 문항으로 구성하고 스파이크 모형의 도입 필요성 등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허민희(2009)에서는 수원화성 관광자원화 프로그램 개발의 관점에서 그 경제적 가치를 CV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수원시민은 가구당 6,718원, 전국은 가구당 4,298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허민희(2009)의 연구는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 측정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조사목적이 상이하며, 소득세라는 거부감이 큰 지불수단을 사용함에 따라 전혀 지불의사가 없는 응답자 비율이 높아 스파이크 모형의 도입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만 했다4). 반면 본 연구에서는 수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람료라는 지불수단을 사용함으로 인

⁴⁾ 스파이크 모형은 0이하의 분포를 절단하고 해당 누적 값을 0에서의 확률 밀도값으로 처리하여 WTP가 과 도하게 낮게 추정되는 것을 보정하는 방법이지만, 잘못된 조사설계로 인해 0이하의 응답비중이 높은 경우

해 적정 관람료 수준 파악에 보다 적합한 조사설계를 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스파이크 모형의 도 입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본 결과 지불수단으로 인한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丑	1>	국나	연구	동향
--	----	----	----	----	----

연구자 (조사/발표년도)	연구대상	조사대상	질문방법	지불도구	WTP ¹⁾ (단위:원)
김학용·김성섭 (2002/2003)	수원화성	방문객, 수도권주민	단일양분	관람료	4,330/4,260 (선형로짓/로그로짓)
이희승 외 2인 (2004/2006)	창덕궁	방문객	이중양분	관람료	5,706/6,005 (선형로짓/로그로짓)
한상현 (2004/2007)	하회마을	방문객	이중양분	공공기금	12,635 (평균값)
최규환·여호근 (2005/2007)	가야고분유적	방문객	단일양분	공공기금	5,666/7,605 (고령/김해)
허중욱 (2006/2007)	강릉단오제	방문객	개방형질문 (이중개방)	관람료	3,396/4,036 (정보제공 전/후)
변일용·김선범 (2007/2007)	울산 역사 문화자원	방문객, 지역주민	이중양분	관람료, 공공기금 (언양읍성)	울산동헌 792, 울산왜성 1,123, 언양읍성 11,023 (월/가구)
이영경 (2008)	불국사·석굴암	방문객	이중양분	관람료	사용가치 8,668
정민섭 외 2인 (2007/2008)	인천 최초사 박물관	방문객	이중양분	관람료	8,138 (평균값)
옥성수 (2008/2009)	팔만 대장경판	만 20세 이상 남녀	이중양분	공공기금 (소득세)	14,796 (연평균 지불금액)
허민희 외 2인 (2009)	수원화성 관광자원화 프로그램	수원시민, 전국시민	이중양분	공공기금 (소득세)	수원시민 6,718/ 전국시민 4,298 (스파이크모형)
서순복 (2009/2010)	고인돌 유적	방문객	단일양분	관람료	2,198 (평균값)
이영경·이병인 (2010)	법주사, 내장사	방문객	단일양분	관람료, 보존기금	법주사 6,055, 내장사 5,760
송용·김재석 (2012)	양동민속마을	방문객	이중양분	관람료	2,815 (평균값)
이은지 외 2인 (2012/2013)	한양도성	방문객	이중양분	보존기금	가상 상황 14,837 실제상황 10,338~11,672

주: 1) 1인당 혹은 가구당 WTP이며, 평균지불의사 값은 소수점 이하 버림을 원칙으로 명기하였음 자료: 송용·김재석(2012)의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연구를 추가하여 재정리함.

한편, 문화유산에 대한 비시장가치 추정 관련 연구는 해외에서는 1991년 노르웨이의 Nidaros 성당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시작으로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조사방법은 점차 개방 형 질문법(open ended method)에서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질문방법으로 바뀌는 양상

오히려 WTP를 과도하게 높게 추정할 가능성도 있다.

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양분선택형 질문 방법이 무응답이나 극빈치(out-lier)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개방형 질문법의 단점을 극복하고, 실제 시장의 상황을 모방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인부합적(incentive-compatible)이기 때문이다(한국개발연구원, 2004). 또한 이는 가상적 상황에서 응답자는 제시된 금액에 대해 단순히 '예'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하면 되기 때문에 응답이 용이하고, 전략적 편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출발점 편의(starting point bias)가 존재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이층기, 2013). 이와 같은 장점 때문에 환경자원의 가치와 관련해 미국 내무성과 해양기국에서도 양분선택형을 추천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환경, 교통, 위생, 건강, 예술,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임정현 외, 2007).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단일경계(single bounded)양분선택형과 이중경계(double bounded)양분선택형의 방법으로 구분된다. 양분선택형 질문법에서 일정한 금액을 제시하고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대답하도록 하는데, 단일경계양분선택형은 이러한 질문을 한 번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중경계양분선택형은 두 번에 걸쳐 질문하는 것이다. 이중경계양분선택형은 응답자가 첫 번째 제시된금액에 지불의사를 표할 경우는 첫 번째 제시금액의 2배의 금액으로 다시 물어보고, 지불의사가없으면 절반의 금액으로 다시 물어보는 방법이다. 이중경계양분선택형은 단일경계양분선택형에비해 효용차이함수나 지출차이함수의 분산을 줄여주어서 WTP 분포 추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작점 편의 등의 전략적 행동으로 인하여 단일경계양분선택형이 갖는 유인일치성이 약화된다는 우려도 있다(이어도연구회, 2013).

한국개발연구원의 CVM 적용 가이드라인(2011)에 따르면 단일경계모형의 추정결과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이 추정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이중경계모형의 추정결과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08;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중경계양분선택형 질문으로 설문지를 구성하되 단일경계양분선택형 모형의 추정 결과가 유의할 경우 이를 최종 결과로 활용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설계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7월 31일(금)까지 수원시 주요 관광지점을 방문한 내국인 1,000명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추출방식은 조사대상지점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작위추출법(random sampling)을 사용하였다⁵⁾. 면접조사시 숙련된 조사원은 가상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응답자에게 수원화성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적 가

⁵⁾ 주요 관광지점별 표본추출 비율은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에 근거하여 '2015년 수원 관광객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지점별 표본추출 비율을 적용하였으며, 각 조사지점에서 임의의 방문객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선정된 방문객이 수원시민이거나 만15세 미만 등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치를 충분히 설명하였다. 이 때 응답자가 수원화성의 가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특 히 역사·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적 가치를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표2〉와 같이 세부 가치의 정의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공하였다.

조사결과의 부석을 위해 SPSS 20.0을 통해 기초통계분석 및 데이터 마이닝을 실시하였으며. CVM 분석과 신뢰구간 추정을 위해 NLOGIT 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2〉 수원화성의 가치 설명

수원의 대표 관광지인 수원화성은 조선시대 첨단 건축기술과 과학기술을 고스란히 담은 동양 성곽의 백미로 다음과 같 은 역사·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ı		
	역사·문화적 가치	(건축사적 가치) 수원화성은 대표적 실학자 정약용을 비롯한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동서양 축성술을 집약하여 적용한 동양 성곽 축성술의 결정체입니다. (역사적 가치) 1801년 발간된 "화성성역의궤"에는 수원화성의 축성계획, 제도, 법식뿐 아니라 동원 인력, 재료 출처 및 용도, 예산 및 임금, 시공기계, 공사일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 시대상까지도 엿볼 수 있는 매우 큰 역사적 가치를 지닙니다. (예술적 가치) 다양한 성곽의 건축물들이 유사하지 않고 제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지녀 군사적 용도 뿐아니라 동양 성곽의 웅장학과 서양 성의 화려학, 실용성을 고루 표현하고 있어 예술적 가치 역시 매우
		급니다. (관광 체험 프로그램) 수원화성은 기존의 관람중심 문화 유적지를 뛰어 넘고자 많은 노력이 진행되어,
	관광자원적 가치	장용영수위의식, 정조대왕 거둥, 무예24기 시범공연, 국궁체험, 뒤주체험, 타종체험 등 각종 볼거리와 체험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원화성문화제) 올해 52회를 맞이하는 수원회성문화제에서는 정조의 애민정신과 효심을 느낄 수 있는 정조대왕 능행차, 혜경국 홍씨 진찬연, 정조대왕 친림 과거시험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관광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원화성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어나가기 위해 수원시는 관람객의 관람료와 국민의 세금으로 수원화성을 유자보 수 및 관리하고 보다 많은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람객의 관람료가 충분히 징수되지 않는다면 수원화성의 **보전관리와 관광프로그램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 습니다. 반면 많은 국민들이 수원화성의 보전가치에 공감하여 충분한 관람료를 지불하는 데에 동의한다면 수원시가 보 다 효과적으로 수원화성을 보존관리하고 더욱 수준 높은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VM 분석을 위한 조사문항은 〈표 3〉과 같이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조 사무항은 〈표 3〉의 1번에서 3번으로 이어지는 무항 구성을 통해 첫 번째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 사 응답에 따라 두 번째 지불의사를 재차 물어보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조사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때 최초 제시금액은 현재 수워화성 관람료 수준이과 사전 파일럿 조사를 통해 1,000원~5,000까 지 1,000원 단위로 다섯 가지 제시금액을 설정하였다. 조사수행 시 다섯 가지 최초 제시금액은 동 일한 비율로 무작위로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전체 표본 1,000명에 대해 각 최초 제시금액 별 200명씩 조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인 양분선택형모형에서는 WTP의 연속적인 분포를 가정하므로 조금도 지불할 의사가 없 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WTP를 음(-)의 값으로 간주하여 분석한다. 따라서 1원도 지불하지 않겠

⁶⁾ 수원화성: 어른 1,000원, 화성행궁: 어른 1,500원, 통합관람(수원화성, 화성행궁,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 물관): 어른 3,500원.

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은 경우 WTP가 과도하게 낮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WTP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P가 음인 부분이 0에서 절단된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0에서의 스파이크(spike)를 허용하는 스파이크 모형이 사용된다(Kristrom, 1997). 이에 본 연구에서도 스파이크 모형의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단 1원도 지불할 의사가 없는지를 질문하고, 그 이유를 함께 물어보았다.

〈표 3〉 CVM 조사문항

1. 귀하는 수원화성의 관람료로 (제시금액)을 지불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만약 이를 지불하지 않으실 경우 수원화성을 잘 보전관리하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유지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2. 그렇다면 관람료로 (제시금액 두 배)을 지불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① 있다 → ① 있다 → 5번으로 ② 없다 → 5번으로 3. 그렇다면 관람료로 (제시금액 절반)을 지불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② 없다 → ① 있다 → 5번으로 ② 없다 → 4번으로 4. 그렇다면 귀하는 단 1원도 관람료로 지불하실 의사가 없습니까? ① 지불의사는 있다 → 5번으로 ② 지불의사가 전혀 없다 → 6번으로 5. 귀하가 수원화성의 관람료로 귀하가 내실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입니까? 1회 입장 시 ()워 6. 귀하는 수원화성의 관람료로 단 1원도 지불하실 의사가 없는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수원화성의 보전·관리와 관광프로그램에는 관심이 없다 ② 수원화성의 보전·관리와 관광프로그램은 이미 납부하고 있는 세금으로 충당해야한다 ③ 관람료 수입이 수원화성의 보전·관리와 관광프로그램에 쓰이지 않을 것이다 ④ 관람료 지불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 ⑤ 수원화성의 보전·관리와 관광프로그램에는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⑥ 관람료를 추가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다 ⑦ 기타 ()

2. 분석 모형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로 WTP 표본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모수적 추정기법에 의한 계수 추정치를 사용한다. 단일경계양분선택형 모형의 경우 지불액이 제시된 양분선택형 질문에 대해 응답자(i=1,...,M)는 '예'(지불할 의사가 있다) 또는 '아니오'(지불할 의사가 없다)로 대답한다. 이 때 응답결과를 의미하는 I_i^Y 는 i번째 응답자 제시금액에 대해 지불의사가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변수이다.

WTP가 C인 응답자 i가 제시금액 B_i 에 대해 '아니오'라고 대답할 확률을 $G_C(B_i)$ 라 하면, 단일 경계양분선택형 모형의 로그우도함수는 아래 4(1)과 같다?).

$$\ln L = \sum_{i=1}^{M} \left[I_i^Y \ln \left(1 - G_c(B_i) \right) + \left(1 - I_i^Y \right) \ln \left(G_c(B_i) \right) \right] \tag{1}$$

위 식에서 $G_C(\bullet)$ 를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G_c(B) = [1 + \exp(a - bB)]^{-1}$ 형태의 로지스틱분포(logistic distribution)로 가정하면,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통해 추정한 계수 추정치 \hat{a} , \hat{b} 을 사용해 기대 WTP는 다음 식(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WTP(C) = \frac{1}{\hat{h}} ln[1 + \exp(\hat{a})]$$
(2)

이중경계양분선택형 모형의 경우 두 번에 걸쳐 금액을 제시하고 지불의사를 물어보게 되는데, 응답자 i에게 첫 번째 질문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B_i 라 하고 이에 대해 '예'(지불할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두 번째 질문에서 더 높은 금액 B_i^u 를, 반대의 경우 더 낮은 금액인 B_i^d 를 각각 제시한다. 이 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의미하는 I_i^{FY} 는 i번째 응답자가 첫 번째 제시금액 B_i 에 대해 지불의사가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10의 값을 가지는 변수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의미하는 I_i^{SY} 는 i번째 응답자가 두 번째 제시금액 10의 많은 11를 가지는 11를 가지는 12를 가지는 13를 가지는 13를 가지는 13를 가지는 14를 가지로 15를 가지는 15를 가지는 15를 가지로 15를 가지로 15를 가지는 17를 가지라 했다가 되었다면 17를 가지라 17를 가지라 18를 가지라 19를 가지라 19를

$$\ln L = \sum_{i=1}^{M} \left[I_i^{FY} I_i^{SY} \ln \left(1 - G_c(B_i^u) \right) + I_i^{FY} \left(1 - I_i^{SY} \right) \ln \left(G_c(B_i^u) - G_c(B_i) \right) + \left(1 - I_i^{FY} \right) I_i^{SY} \ln \left(G_c(B_i) - G_c(B_i^d) \right) + \left(1 - I_i^{FY} \right) \left(1 - I_i^{FY} \right) \ln \left(G_c(B_i^d) \right) \right]$$
(3)

⁷⁾ Cameron & James(1987)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⁸⁾ Hanemann & Kanninen(1991), 옥성수(2011)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응답자 특성

응답자 1,000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51.6%이며, 연령은 '20대'가 3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구 월 소득은 '500만 원 이 상'이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에서는 '군인 및 학생'(27.0%)과 '전문직' 종사자(18.6%)가 많았고, '미혼'(52.7%)이 '기혼'(47.3%)보다 약간 많았다.

변수	내용	빈도(명)	%	변수	내용	빈도(명)	%
성별	남	484	48.4		공무원/관리직	70	7.0
- 6∃ 	여	516	51.6		전문직	186	18.6
	10대	132	13.2		일반사무직	99	9.9
	20대	309	30.9		20017		0.0
	30대	167	16.7		서비스직	99	9.9
연령	40대	166	16.6	XIOI	판매직	19	1.9
	50대	129	12.9	직업	농림어업직	7	0.7
	60대 이상	97	9.7		단순노무직	18	1.8
	100만원 미만	74	7.4		군인, 학생	270	27.0
	100만원 대	88	8.8		LL, 10	270	27.0
가구 월 소득	200만원 대	222	22.2		무직	101	10.1
	300만원 대	182	18.2		기타	131	13.1
	400만원 대	192	19.2	거들어버	기혼	473	47.3
	500만원 이상	242	24.2	결혼여부	미혼	527	52.7

〈표 4〉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관광 관련 행태적 특성

2. 조사결과

CVM 문항에 대한 지불의사 응답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1차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를 나타낸 응답자는 74.5%, 절반 수준인 2차 제시금액에 대해 지불의사를 나타낸 응답자는 18.3%로 수원화성의 관람료에 대해 대체로 적극적인 지불의사를 표명하였다. 특히, 1차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는 최초 5천원을 제시한 E형의 경우에도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입장료 수준을 고려하면 수원화성에 대한 방문객들의 지불의사가 상당히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에서 E로 제시금액이 높아질수록 1차 지불의사 있음과 2차(두 배) 지불의사 있음의 응답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응답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1	1차 지불의사 있음			1차 지불의사 없음				
구분*	소계	2차	2차	ᆺ게	2차	2차	최종지	불의사	표본수
	소계	(두배)있음	(두배)없음	소계	(절반)있음	(절반)없음	>0	없음	
Α	181	140	41	19	12	7	2	5	200
В	172	83	89	28	22	6	2	4	200
С	152	41	111	48	35	13	8	5	200
D	132	44	88	68	55	13	5	8	200
Е	108	29	79	92	59	33	16	17	200
응답수	745	337	408	255	183	72	33	39	1,000
(비중)	(74.5)	(33.7)	(40.8)	(25.5)	(18.3)	(7.2)	(3.3)	(3.9)	(100)

〈표 5〉 CVM 문항에 대한 지불의사 응답 결과

조사대상 중 단 1워도 지불할 의사가 없는 응답자는 전체 표본의 3.9%에 불과하여 스파이크 모 형의 도입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수워화성 관광자워화 프로그램의 경제적 가치 에 대한 연구인 허민회 외(2009)에서 지불의사가 1워도 없는 응답자가 수워시민 40%. 전국 50%로 매우 높아 스파이크 모형을 도입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지불수단으로써 관람료를 제시 하는 경우에 비해 세금을 제시할 경우 응답자의 거부감이 얼마나 큰지를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지불의사가 없는 39명의 응답자에게 단 1원도 지불할 의사가 없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기타 응 답을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28.2%로 가장 많았다. 기타 응답 으로는 매표소만 피하면 입장료를 안내고 관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현 실적 문제를 지적한 응답이나, 경로우대 차원에서 입장료 지불의사가 없다는 응답 등이 있었다.

3. CVM 분석결과

식(1)과 식(3)의 모형을 추정한 결과 두 가지 모형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우 추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을 굳이 도 입할 필요가 없으며.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은 반응효과(response effect)로 인한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의 추정 결과를 최종 결과로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10). 다만 두 모형의 추정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표에는 두 가지 결과를 모두 정리하였다.

주: 각각 최초 제시금액이 A는 1,000원, B는 2,000원, C는 3,000원, D는 4,000원, E는 5,000원 임

⁹⁾ 스파이크 모형으로 추정해본 결과 스파이크에 대한 추정치가 유의함에도 계수 값이 워낙 작아 WTP 계산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¹⁰⁾ 한국개발연구원 CVM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구분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모형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모형
상수항	2.8041** (12.91)	2.8697** (27.02)
제시금액	0.5323** (9.14)	0.6182** (28.12)
관측치 개수 로그우도(Log-likelihood) Wald 통계량 (p-value)	1,000 -520.333 237.38** (< 0.000)	1,000 -1,223.95 840.44** ((0.000)

〈표 6〉 모형 추정결과

모형 추정결과를 토대로 평균 WTP를 계산한 결과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에 의한 수원화성에 대한 관광객들의 WTP는 5,267.5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원화성의 현행 관람료에 비해 수원 방문객들의 지불의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본 조사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수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분석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 김학용·김성섭(2003)에서 방문객과 예비방문객으로 정의한 수도권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WTP가 4,260원이었던 것에 비해 23.6% 높은 수치이다. 이는 조사시점의 차이도 있으나 조사대상을 수원 방문객으로 한정하고 수원화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치를 정의하는 등 적정 입장료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설계의 차이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표 7〉 평균 WTP 추정결과	
-------------------	--

구분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모형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모형
평균 WTP(원/인/방문)	5,267.5** (21.84)	4,641.8** (45.31)
– 95% 신뢰구간 – 99% 신뢰구간	4,860.7 - 5,841.7 4,758.5 - 6,079.4	4,439.6 - 4,835.2 4,363.3 - 4,912.7

- 주: 1) 추정치 아래의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t값임. **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 2) 평균 WTP의 표준오차는 델타법(delta method)를 이용하여 계산되었음
 - 3) 평균 WTP의 신뢰구간은 Krinsky and Robb(1986)에 제시된 몬테칼로 모의실험 기법을 이용하여 계산하되 재표 본추출의 횟수는 5,000회로 하였음

일반적으로 CVM을 활용한 비시장적 가치를 추정할 때는 WTP 추정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등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수원 관광객으로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에 비해 WTP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설문 문항에서 지불수단은 수원화성의 입장료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본 연구의 WTP 추정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수원화성의 방문객 수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표 8〉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선 수원 주요 관광지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수원화성의 가치

주: 1) 추정치 아래의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t값임. **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를 추정해 보면 연간 약 150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재적 관광 수요 를 반영한 수원화성에 대한 가치를 추정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관광지 방문객수 통계는 조사지점이 대체로 수원화성 인근에 위치해 있으나 각 조사지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중 복집계 되거나 일부 지점의 조사방법이 과학적이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수원시정연구원, 2015b). 따라서 가장 좁은 범위에서 실제 수원화성의 방문객 수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9억 원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원화성의 방문객이 수원화성을 잘 보전 관리하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유지·운영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총액으로 현재 입장객 수준 하에서 적정 수준의 입장료 수입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구분	우리나라 가구수 ¹⁾ (가구)	수원 주요관광지 방문객 수 ²⁾ (명)	수원화성 방문객 ²⁾ (명)
추정근거	17,339,422	2,849,056	365,260
수원화성의 연간 가치 (백만원)	91,335	15,007	1,924

〈표 8〉 수원화성의 가치 추정

V. 결론 및 시사점

해외 주요 고궁 및 고성 등 문화유산 관람료는 국내 문화유산 관람료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 게는 30배 이상 높다. 심지어 국내 문화유산의 경우 관람료가 무료인 곳도 많이 있으며, 특히 빅맥 지수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관람료만이 유일하게 햄버거 가격보다 싼 것으로 나타 났다. 국내 문화유산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문화재청(2012) 역시 국내 문화유산이 외국의 만리장 성, 베르사유궁전, 버킹검 궁전 등과 비교하여 규모, 인지도 및 선호도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나, 문화유적 관람료가 외국과 비교해 너무 낮은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 관람료와 관련한 논의들을 토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 하 나인 수원화성의 가치 추정을 통해 수원화성 관람료의 적정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일반 적인 문화유산 가치에 대한 CVM 연구 및 수원화성에 대한 기존연구들과는 달리 조사대상을 우리 나라 전체 국민이 아닌 수워 방문객만으로 한정하여 입장료의 관점에서 보다 정확한 지불의사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정확한 응답이 가능하도록 수원화성의 가치를 '관광자원적 가치'까지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정의하였다. 그 결과 수원 방문객들의 수원화성 관람료 지불의사금액은 5.267.5원으로 기존 연구는 물론 현행 입장료 1.000원에 비해 5배 이상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수원화성의 관람료 현실화에 대한 관광객들의 수용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출한 지불의사액에 기초하여 수원화성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 수원화성 방문객 수에 근거한 실제 입장료 수입의 관점에서는 연간 약 19억 원의 가치를 지니며, 잠재적 관

주: 1) 통계청 KOSIS. 2010년 기준.

²⁾ 수원시(2015a), 수원 주요관광지 관광객 이동 현황, 2014년 기준.

광 수요라 할 수 있는 수원 방문객 수에 근거한 잠재적 가치는 연간 약 150억 원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은 단순 관람을 위한 문화유산에서 나아가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문화유산활용 프로그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공원 입장료의 성격으로 받던 관람료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문화유산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람료 현실화 추진이 시급하다. 특히 국내 문화유산의 관람료가 외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문화유산의 가치가 해외유산에 비해 떨어진다고 여기는 경향도 있으므로 관람수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인 인상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재청(2012)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관람객 비중이 큰 경복궁, 창덕궁, 종묘 등 대표 문화유산의 관람료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서 지정의 근거가 된 건축역사문화 가치 외에도 관광체험 프로그램, 수원화성 문화제 등 관광자원적 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원화성 관람료의 현실화 방안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화성에 대한 관광객들의 지불의사가 관람료 현실화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할 만큼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관람료 현실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증대되는 수입으로 관광객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는 곧 수원화성의 가치를 높이고 점차 관람료를 현실화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적정 입장료의 관점에서 수원 방문객만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수원화성의 가치로 확장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단순 관람료 관점이 아닌 국민들이 느끼는 수원화성의 총 가치(gross value)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향후 수원화성의 적정 관람료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본 연구 결과가 매우 중요한 과학적 조사 자료가 될 것으로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원화성의 가치를 크게 역사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적 가치로 크게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최근 관광자원의 가치 추정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험선택법(Choice Experiment Method) 등을 통한 수원화성의 가치 추정 등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경기개발연구원. (2014). 「경기도 문화유산 사용가치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김사헌·김규호. (2012). 「관광경제학」. 백산출판사.

김학용·김성섭. (2003). CVM을 이용한 수원 화성의 이용가치 평가. 「관광학연구」. 27(3): 157-172. 김해창·김영하·차재권. (2014). 고리원전의 탈원전 추진을 위한 원전안전이용부담금 도입에 관한 실증분석, 「지방정부연구」. 18(2): 319-342.

- 문화재청. (2012). 「문화재보호기금 재원 확충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변일용·김선범. (2007), 울산의 역사문화자원 이용 특성 및 가치평가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₁10(3): 69-78.
- 서순복. (2009). 영업정지철도역의 문화관광자원화 활용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13(3): 303-320.
- . (2010). 문화자본으로서 고인돌유적지의 가치평가와 지역문화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22(2): 455-478.
- 송용·김재석. (2012). 조건부 가치추정법을 이용한 문화유산의 가치평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 유산 양동민속마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4(2): 253-267.
- 수원시. (2015a). 「2014 제54회 수원기본통계」.
- . (2015b). 「"방문의 해" 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한 2015 수원 관광객 실태조사 ₁.
- 수원시정연구원. (2015a).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수원육성방안」
 - . (2015b). 「수원시 관광통계 개선방안」
- 옥성수. (2009). CVM을 이용한 팔만대장경판의 총가치 분석, 「문화산업연구」. 9(1): 5-18.
- ____. (2011). CVM을 이용한 창덕궁입장료 추정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문화경제연구」. 14(1), 77-94.
- 이어도연구회. (2013). 「이어도의 유무형 가치 연구」.
- 이영경. (2008). 문화유산 자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 불국사·석굴암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 회지 1 26(1): 35-43.
- 이영경·이병인. (2010). 유산관광 자원에 대한 보존 및 이용가치 평가: 지속가능한 이용을 중심으 로, 「환경영향평가」. 19(4): 409-420.
- 이은지·이충기·이혜미(2013), CVM을 이용한 서울 한양도성의 보존가치 평가: 가상적, 실제적 시 나리오 적용. 「서울도시연구」. 14(3): 59-71.
- 이희승·조민·박종구. (2006). 창덕궁의 사용가치 추정: 조건부시장 가치평가법의 적용. 「관광·레 저연구 1. 18(2): 211-225.
- 임정현·고태호·황경수·양영철. (2007). CVM을 이용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따른 경제적 가치 분석.「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1): 177-195.
- 장호수. (2006). 문화재 활용론: 활용의 개념과 범주에 대하여, 「인문콘텐츠」, 7: 155-173.
- 정민섭·한혜숙·박선희. (2008). CVM을 이용한 근대문화유산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인천 최초 사 박물관의 건립사례를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17(3): 175-195.
- 한국개발연구원. (2004). 「문화시설의 가치추정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1). 「CVM(조건부 가치측정법) 적용사업관리 내실화를 위 한 Guideline 1.
- 한상현. (2007a).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추정법을 이용한 문화유산 관광자원의 가치평가. 「관광학연구」. 31(1): 443-464.
- . (2007b). 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 평가방법: 해외연구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CERI Entertainment Review 7: 139-155.

- 허민희·사영준·김원준. (2009). 수원화성 관광자원화 프로그램의 경제적 편익 추정. 「지역연구」 25(2): 23-46.
- 허중욱. (2007). 문화관광자원의 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보편의: 2006년 강릉단오제. 「관광학연구」 31(2): 105-125.
- Cameron, T. A., & James, M. D. (1987). Efficient estimation methods for closed-ended contingent valuation survey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269-276.
- Hanemann, M., Loomis, J., & Kanninen, B. (1991). Statistical efficiency of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3(4), 1255-1263.

박찬열(朴贊烈):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홀드업 문제 및 포용적 성장의 측정에 관한 세 논문)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주)PPS Company에 연구기획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계량 경제학, 실험경제학, 경제성분석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공동대리인 제도와 홀드업 문제에 대한 실험 연구 (2014) 등이 있다(chan10a@gmail.com).

송화성(宋和星):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관광학 박사학위(Measu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alization and Place Attachment in a developmental and practical context)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수 원시정연구원에 연구위원으로 근무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관광자원관리 및 관광개발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Measuring Hiking Specialization and Identification of Latent Profiles of Hikers(2016), 여행경력패턴에 따른 수원 관광객의 유형과 특성(2015), 활동관여-장소애착 유형에 따른 환경책임행동분석(2015) 등이 있다(hssong@suwon.re.kr).

Abstract

The Estimation of Payment Value of Historical Tourism Resources for Admission Fee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A Case of Suwon Hwaseong Fortress

> Park, Chanyul Song, Hwasung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conomic value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tourism resources of Hwaseong Fortress by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Unlike other CVM research on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Suwon visitors, not the entire population, and more accurately identify their willingness to pay (WTP).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Suwon visitors' willingness to pay for Hwaseong Fortress was KRW 5,267.5, higher than current admission fe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stimation on the value of Hwaseong Fortress based on this WTP, it was analyzed that Hwaseong Fortress is worth approximately KRW 1.9 billion annually and its annual potential tourism value based on the number of Suwon visitors is KRW 15 billion.

Key Words: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Entrance Fee, Willingness to Pay(WTP), Historical Tourism Resource, Suwon Hwaseong Fortress